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난 재산과 신분의 관계

—『청구야담』을 중심으로—

신 동 혼

1. 머리 말
2. 야담에서의 사실과 허구
3. 재산-신분 관계의 형상화 양상
4.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의 양상
5. 맺음 말

1. 머리 말

이 논문은 야담 자료를 통하여 조선 후기 문학에 당대의 사회적 삶이 형상화된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 후기는 흔히 중세사회의 해체기로 일컬어지거니와, 이 시기 사회 변화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신분과 경제력의 어긋남의 양상을 야담집에 실린 여러 이야기 자료를 통해 점검하고, 또한 그러한 변화에 대하여 당대인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를 통해 이 시대 사회적 삶의 저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그 역사적 방향성을 추적해 보려 한다.

조선후기 야담에 대한 연구는 그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¹⁾ 그 가운데는 신분(身分)이나 빈부(貧富)의 문제를 주요 관심사로 다룬 것이 적지않다.⁽²⁾ 그 연구는 대개 야담 자료로부터 당대의 사회현실을 읽어내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었는바,⁽³⁾ 그 연구의 결과로서 조선 후기에 경제력의 재분배

(1) 야담의 연구 경과는 정명기, 「야담 연구의 현황과 장래」, 글터 1집, 원광대 국어교육과, 1983 및 이강옥, 「야담의 연구 시각」,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에서 정리된 바 있다.

(2) 다음 논저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박희병, 「청구야담 연구」, 국문학연구 52집, 1981; 임철호, 「이조후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인간상 I」, 전주대 논문집 10집, 1982; 이강옥, 「조선후기 야담집 연구」, 국문학 연구 60집, 1982; 정명기, 「奴-主의 어울림과 맞섬」, 한국언어문학 21집, 1982; 김경숙, 「신분변동 야담연구」, 국문학연구 90집, 1989; 이수영, 「조선후기 야담연구—치부담을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논문, 1992.

(3) 물론 기존의 모든 연구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었다. 야담집에 실린 이야기의 양식적 성격과 역사적 전개 과정, 서술 시각 등도 기존 야담

를 통해 광범위한 신분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다각적으로 해명되었으며, 그것은 역사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의 진전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박희병은 『청구야담』 자료에 대한 고찰의 결과로서 이 시기 야담이 “궁극적으로 봉건적 제 구속을 탈피하여 근대적 인간 해방을 지향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⁴⁾

이 논문의 기본 연구 방향은 기존 연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대다수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 자료로부터 현실을 읽어내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논의 중복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 방향의 연구분석을 거듭 시도하는 것은 이 방면 연구에 보완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학은 현실을 반영하지만, 그 반영의 양상은 단순하지 않다. 문학에 형상화된 인간과 세계는 사람들의 상상을 통하여 재구성된 것으로서, 그 속에는 현실과 꿈, 사실과 허구가 한데 얽혀 있다. 이에는 물론 야담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야담의 형상화 원리로서의 사실과 허구의 결합 양상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개별 작품 분석 과정에서 사실적 요소와 허구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적은 많지만, 그 관계 양상에 대한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였다. 그 결과 실제 현실과 작중 현실의 역학관계가 충분히 드러날 수 없었다고 본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야담에 있어 사실과 허구가 얽히는 양상을 좀더 체계적으로 가려 따지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입각하여 이야기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야담의 현실 수용 양상에 관한 인식의 진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현실을 문제삼음에 있어 ‘역사적 사실’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양상’을 드러내는 데 관심을 두려 한다.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대응을 ‘삶’의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야기 등장 인물의 구체적 행동 양태와 함께 가치관을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성과를 기약할 수 있으리라 본다.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이었다. 그렇지만, 신분이나 치부(致富)의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다룸에 있어 관심은 아무래도 당대 사회상 쪽에 귀결되기 마련이었다.

(4) 박희병, 앞의 논문, 181면.

이 논문에서는 고찰 대상을 『청구야담(靑丘野談)』에 실린 자료로 한정한다. 여러 야담집의 자료를 한꺼번에 다루는 것은 무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청구야담』을 대상으로 택한 것은 『청구야담』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야담집으로서 당대의 사회현실을 반영한 이야기들을 폭넓게 수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⁵⁾ 자료를 살핌에 있어서는 선별적 논의를 지양하고 신분-재산 관계를 문제삼고 있는 것들을 두루 포괄해 다룸으로써 시각의 객관성을 추구하고자 한다.⁽⁶⁾

2. 야담에서의 사실과 허구

이야기문학에 있어 사실과 허구의 위상은 다양하고도 복잡하다. 사실과 허구가 한데 얽히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지만, 그 구체적 관계 양상은 이야기 각편이나 유형, 갈래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인다. 구비설화의 여러 갈래를 대상으로 한 필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화(史話)는 사실을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가 구성되고, 전설(傳說)은 이야기 구성과 전승에 있어 사실과 허구가 맞부딪히는 양상을 보이며, 고담(古談)은 허구를 전제로 하여 내용이 구성되고 전승이 이루어진다. 고담은 다시 사실적(寫實的) 고담과 희극적 고담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실적 고담은 이야기 내용이 현실적 개연성의 범위 내에서 전개되는 데 비하여 희극적 고담에는 현실적 개연성을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⁷⁾

야담을 두고 사실과 허구의 위상을 따지는 것은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제이다. 이때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야담집에 실린 이야기들의 다양성이다. 야담집에 다양한 갈래의 이야기들이 섞여 있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거

(5) 『청구야담』은 19세기 전반에 편찬된 야담집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자료들 중 대다수는 17세기 이후 19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의 산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문제삼는 시대현실은 자연 이 시기에 걸쳐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책이 편찬된 19세기 전반기의 상황이 특히 문제시된다.

(6) 『청구야담』은 이본이 많은데, 그 중 19권 19책의 규장각본을 기본 텍스트로 삼고 ‘서벽외사 해외수일본’을 함께 살폈다. 자료를 살핌에 있어 서대석 편저, 『조선조문헌실화집요(1)』, 집문당, 1991과 이우성·임형택 역편, 『이조한문단편집』, 전3권, 일조각, 1973~1978이 좋은 길잡이가 되었다.

(7) 줄고, 「역사인물담의 현실대응방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123~181면 참조.

니와, ⁽⁸⁾ 실제로 거기에는 사화나 각종 일화(逸話), 전설, 희극적 고담 등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포함돼 있으며, 그와 더불어 ‘한문 단편’, ‘야담계 소설’ 등으로 지칭돼 온 일련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다양성은 그 문학적 특성에 관한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이 여러 종류의 자료들 가운데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을 가릴 수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한문 단편’ 류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다. 이 이야기들이 야담의 새로운 서사 세계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바, 기존 이야기 양식들과 다른 야담의 서사적 특성은 이 자료들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⁹⁾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재산과 신분의 관계 문제만 하더라도 실은 이 계열의 자료들에 있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한문 단편’ 류의 야담 자료들은 사실과 허구의 관계에 있어 사화나 전설, 고담 등과는 또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내용상 어떤 뚜렷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서술자들이 그 사실성(事實性)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화와는 다르다. 그런가 하면 현실적 개연성의 범위에서 내용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허구적이고 신이한 이야기 요소가 부각되는 전설과 구별된다. 이러한 야담과 가장 가까운 것은 허구를 전제로 하면서도 현실적 개연성에 입각해 내용이 구성되는 ‘사실적 고담’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화자나 청자가 ‘꾸며낸 이야기’임을 전제로 하는 고담과 달리 야담은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 내용이 ‘실제의 일’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이야기의 시·공간적 배경이나 등장 인물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는 점 등이 그 효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야담은 사실적(寫實的) 고담과 통하면서도 사실성(事實性)을 부각시켜 작품의

(8) 박희병, 앞의 논문, 55~62면; 이강옥, 앞의 논문(1982), 13~52면 및 「조선 초·중기 일화의 형성과 변모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3, 18~25면. 박희병은 민담, 전설, 소화, 일화, 야담계 단편소설 등으로 구분하였고, 이강옥은 전설, 민담, 소담, 사대부일화 및 야사, 평민일화 및 평민 단편소설, 야담계 일화 및 야담계 소설 등으로 나누었다.

(9) 이 자료들에 대해서는 설화인가 하는 의견이 맞서 있다. 야담을 ‘문헌설화’로 다룬 조희웅 등이 이들을 설화에 포괄해 보는 관점을 보인다면 임형택 이래 이신성, 박희병, 임철호, 이강옥 등은 이들을 소설로 보는 입장을 취하였다(그 자세한 논의는 이강옥, 앞의 글(1986) 참조).

현실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⁰⁾

야담이 이처럼 강한 현실성을 지닌다는 것은 야담을 통해 현실적 삶의 양상을 읽어내는 작업의 기본 근거가 된다. 현실을 현실의 차원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이 야담이므로, 그 이야기 내용 속에서 어렵지 않게 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야담에 있어서도 허구적 요소는 특넓게 개입돼 있다. 야담의 이야기 내용은 ‘사실적(事實的)’일 뿐 사실 그대로는 아니다. 그것은 현실의 반영물이지만, 그 현실은 사람들에 의하여 ‘선택된’ 것이며, 또한 상상을 통해 ‘재구성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 속에는 실상으로서의 현실과 상상과 꿈이 만들어낸 허상(虛像)으로서의 현실이 함께 얽혀 있다. 우리는 그 실상과 허상을 가려내야 하며, 허상 이면에 가로놓여 있는 삶의 실상을 읽어내야 한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그 작업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 작업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야기의 존재방식에 기초적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이야기에 ‘화제’에 해당하는 내용과 ‘전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결합돼 있고, 양자에 있어 현실의 수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하나의 이야기가, 특히 별다른 목적의식이 없는 세간의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전승·향유되는 것은 거기 무언가 흥미있는 것,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야기내용이 뻔한 일상사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해 줄 수 없다. 곧 생명력 있는 이야기로서 존재할 수 없다. 이야기를 성립시키는 그 특별한 이야기내용을 일컬어 ‘화제(話題)’라 할 수 있다.

이야기의 중심 내용을 이루는 것은 화제이지만, 화제만으로 내용이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에는 그러한 화제를 유도하고 뒷받침하는, 그 자체로서는 특별하다고 하기 힘든 내용이 들어 있게 마련이다. 예컨대, 어떤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기에 앞서 이야기의 출발상황으로 제시되는 인물의 처

(10) 필자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야담이 하나의 독자적 이야기 양식으로서의 최소한의 속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야담의 양식적 특성이란 문제는 이처럼 간단히 논할 수 없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둔다.

지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와 같은 이야기 내용을 일컬어 ‘전제(前提)’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전제와 화제를 가르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특별함’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주관성을 내포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에 의해 화제와 전제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이야기의 출발 상황으로 제시되는 내용은 대체로 이야기 전제에 해당하며, 전환이나 절정에 해당하는 내용은 화제에 해당한다. 둘째, 서술자가 특별한 배려 없이 단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대개 전제에 해당하며, 관심 속에 상세히 서술하는 내용은 화제에 해당한다. 셋째, 작중 인물이나 서술자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내용은 전제에 해당하며, 그들이 특별한 일로 받아들이는 내용은 화제에 해당한다. 넷째, 이상의 기준과 더불어 연구자가 당대 독자의 입장에서 내용의 특별함 여부를 헤아린 결과 또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두 이야기 구성요소 가운데 전제는 대개 단편적이고 거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현실의 구체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것은 못한다. 그렇지만 전제의 현실 반영적 의미는 만만치 않다. 전제에 제시되는 현실 상황은 허구적 변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현실의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야기의 전제들을 통해 이야기 담당자들에게 있어 현실의 어떠한 부면이 ‘당연지사(當然之事)’로 받아들여졌는가를 추정해 볼 수 있으며, 그것은 현실 상황의 바른 이해에 긴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¹¹⁾

‘화제’에 있어 현실이 수용되는 양상은 전제에 있어서와는 다르다. 화제의 상황은 관심 속에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만큼, 현실과 관련하여 풍성한 논의거리를 제공해 준다. 그렇지만 화제의 내용이 실제 현실과 바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 화제 속에 형상화된 현실은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현실’로서, 일상적 현실의 평범한 한 단면이라 보기 힘들다. 거기에는 사실과

(11) 전제는 어느 이야기 양식에서든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만, 야담에 있어서 전제의 의미는 좀 각별하다. 야담이 당대적 현실을 현실 차원에서 문제삼는 방향성을 취하고 있는 만큼, 전제 속에 현실의 단면이 잘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야담을 대상으로 한 논의에서 전제와 화제를 구별해 따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함께 허구가, 경험과 함께 ‘꿈’이 착종돼 있다. 그 변수를 제대로 짚어내야만 현실의 실상을 읽어낼 수 있다.

화제의 현실 수용 양상을 짚어 보는데 있어 관건이 되는 요소는 ‘현실성’과 ‘필연성’ 여부라 할 수 있다. 화제가 현실성과 필연성을 갖추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작중 현실이 지니는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¹²⁾ 먼저 화제가 현실성과 필연성을 함께 갖추고 있을 때, 곧 필연적 현실성을 갖추고 있을 때 그것은 현실의 한 단면을 ‘전형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게 된다. 즉 그 상황은 특별한 것이면서 동시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의 보편적 공감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이야기내용으로부터 현실의 심상하지 않은 숨겨진 모습, 새로운 모습을 찾아낼 수 있다. 곧 현실의 본질적 측면에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 한편, 이와 달리 화제가 필연성이나 현실성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곧 필연적 현실성을 갖추지 못하고 비현실적 요소나 우연적 요소에 의존하여 부각될 때 그 화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내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품 속의 현실은 한갓 꿈에 불과하거나(환상이 개입한 경우), 뒤틀리고 전도된 것이거나(과장이 개입한 경우), 보편성이 결여된 ‘특수한 것’에 불과하다(우연이 개입한 경우). 그것은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기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서 허상(虛像)에 불과하다.⁽¹³⁾ 이러한 화제는 작중상황을 통해 현실을 바로 보여주기보다는 거꾸로 보여준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현실의 ‘불가능태(不可能態)’ 쪽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¹⁴⁾

(12) ‘현실성’은 화소(話素)가 현실적 개연성의 범위 안에 있는가에 따라 가름된다. 현실적 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장이나 환상적 요소가 개입할 경우 그 내용은 현실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필연성’은 사건의 전개가 현실적 인과관계에 입각하고 있는가에 따라 가름된다. 우연적 요소가 개입하여 상황이 진전될 때 그 내용은 필연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현실성의 개념을 좀더 폭넓게 설정할 경우 그 속에 필연성까지도 포괄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현실성을 위와 같은 좁은 개념으로 정의해 두기로 하며, 현실성과 필연성을 포괄하는 개념은 ‘필연적 현실성’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13) 그 허상을 만들어낸 주된 주체는 담당자들의 의식이라 할 수 있다. 현실에 대한 비합리적 인식이나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것에 대한 꿈 등이 그러한 허상을 낳는 것이다.

(14) 이야기 속의 비현실적·우연적 요소가 언제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전설이나 민담, 소설(특히 풍자소설) 등에서 이들은 현실의 숨겨진

이제 실제 자료에 있어 전제와 화제가 어떻게 구별되며, 그를 통해 어떻게 현실이 형상화되는가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유진사는 집이 몹시 가난하였는데, 흉년을 만나 굶어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2. 유진사가 내당에 가보니 부인이 무엇을 씹고 있었는데, 알고본즉 허기를 못이겨 수박씨를 씹은 것이었다. 부부는 함께 눈물을 흘렸다.
3. 그때 어떤 관노가 찾아와 유진사가 능참봉에 낙점되었음을 알려주었다. 자신을 위해 벼슬을 주선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유진사는 잘못 안 것이라면서 하인을 돌려보냈다.
4. 그 관노가 다시 찾아와 유진사가 분명하다고 하였다.
5. 유진사가 숙배(肅拜)할 기운도 의복도 없다고 하자 그 하인이 음식과 의복을 주선해 주었다. 이후 하객과 축하인사가 줄을 이었다.
6. 유진사가 출직한 다음 알아보니, 이조판서와 절친한 사이에 있는 자신의 동창이 자신의 사정을 알고 이조판서를 통해 벼슬을 주선한 것이었다.
7. 유진사가 출세하여 이조의 요직에 올라 간성 원을 추천하게 되었다. 유진사는 전임 이조판서의 아들이 간구한 처지에 있음을 알고 다른 청탁을 다 물리치고 그를 추천하여 은혜를 갚았다. <청구 74; 擬腹邑宰相償舊恩>⁽¹⁵⁾

위 예화의 내용 가운데 1단락의 ‘가난한 진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제’에 해당한다. 이야기의 출발 상황으로서, 원인 제시 같은 것 없이 상황이 단적으로 제시된다.

옛적의 뉴진사라 하는 사람이 이시니 집이 가난하여 도블녀석하고 또 검세를 당하여 조성홀 길이 업더니, (2권 380면)⁽¹⁶⁾

이에 이어지는 2단락의 내용은 배경을 제시한 것이면서도 ‘화제’로 인정될 수 있다. 그 내용이 평범치 않고 절박하며, 상황이 관심 속에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여기서 여인이 수박씨를 씹었다는 것은 가난에 의하여 어쩔수없이 봉착한 결과로서 필연적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

본질을 드러내 보여주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곤 한다. 문제는 야담에 있어서 허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현실을 현실 차원에서 문제삼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일치에 의해 현실이 변질 또는 왜곡되는 것이다.

(15) 제목 앞의 자료번호는 서대석 편저, 앞의 책의 자료 고유번호에 해당한다. 앞으로 제시될 자료번호 또한 그 의미가 이 경우와 같다. 자료 제목은 한문본에서 취한 것이다.

(16) 인용문은 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계명문화사, 1987, 2~3권에 영인된 자료를 따랐다. ‘2권’은 이 책의 권수를 뜻한다. 인용자가 띄어쓰기를 하고 구두점을 달았다.

3~6단락에 제시되는, 유진사가 능참봉에 제수된다는 내용은 이 이야기의 주요 화제로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주인공 자신이 믿지 못할 정도로 의외의 일로서, 큰 관심 속에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진스님계오셔 아모 능참봉 슈망을 들어 몽점호신 고로 망통을 가지고 간신히 차자왔나이다.”

하고 즉시 스티 속으로서 망통을 너여 보니 과연 즈가 성명이라. 그러나 니판이 누군 줄을 알지 못호거늘 이제 이에 의망호니 실노 의외라. 여취여광호여 의괴호기를 낭구히 하다가 갈오더

“이 반드시 날노 더브러 동성동명이로다. 네 그릇 차자왔스니 다른 곳의 가 즈세히 방문호라. 내 집이 지빈호여 세상의 내 성명 알 니 업스니 엇지 의망호니 잇스리오.”

하고 인호야 도로 드리간디 (…)(2권 381면)

이 화제는 대체로 현실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 개연성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연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유진사에게 닥쳐온 능참봉 제수는 본인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본인이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우연히 닥쳐온 행운으로 돼 있는 것이다.

다음 7단락의 내용에는 전제와 화제가 얽혀 있다. 이조판서택이 몰락했다는 것은 전후 맥락 없이 단적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전제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주인공이 온갖 청탁을 물리치고 자신을 추천한 이조판서 택에 보은하는 길을 택한다는 것은 관심 속에 구체적으로 서술된 내용으로서 화제에 해당한다. 그 선택은 당시의 일반적 세태와는 다른 것으로서,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 고민 끝에 도달한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이조판서 아들로 보면 기대치 않았던 우연한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위의 이야기가 양반의 어려운 생활처지, 양반가문의 영락 등을 전제로 삼는 가운데, 형언 못할 가난의 고통을 겪던 양반이 뜻밖에 벼슬을 얻어 출세하고 후에 그 은혜에 보답했다는 것을 화제로 삼은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그 전제를 통해 우리는 초시에 급제한 양반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을 읽을 수 있으며, 양반 가문이 한두 세대 사이에 심하게 몰락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화제 가운데 필연적 현실성을 갖추고 있는 유진사의 극심한 가난으로부터 연줄과 경제력이 없는 양

반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가를 ‘전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우연적 요소가 개입한 유진사의 출사(出仕)—또한 이조판서 아들의 출사—라는 화제로부터는 양반의 출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양반이 그 상황을 탈피하여 처지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역설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인용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당사자조차 꿈에도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였던 것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화제’에는 ‘전제’에서와 달리 이야기 담당자들이 현실을 대하는 관점이 투영된다는 점이다. 유진사가 극심한 가난에 짓눌려 비통해하는 내용에는 몰락양반의 암담한 상황에 대한 비탄이 함축돼 있고, 그의 뜻밖의 출세라는 화제에는 양반들의 처지 회복에 대한 꿈이 담겨 있으며, 유진사의 보은이라는 화제에는 의리가 지켜지는 세상에 대한 바람이 내포돼 있다. 이중 필연적 현실성에 입각하고 있는 몰락양반의 처지에 대한 비탄이 강한 울림을 지니는 데 비해, 우연에 의지해 제시되는 양반의 처지 회복(나아가 출세)에 대한 희망이 무기력한 공상에 그치고 있음은 물론이다.

3. 재산-신분 관계의 형상화 양상

『청구야담』에 수록된 이야기 자료 가운데 신분과 재산의 관계를 문제삼는 이야기는 매우 많다. 주인공이 등장할 때 흔히 그 경제적 처지가 명시되며, 부(富)의 변동이 주요한 화제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그 대개의 이야기에 있어 주인공의 신분이 문제시된다. 그 중 내용 전개상 신분과 재산의 문제가 별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들을 제외해도 논의 대상 자료가 80편 이상에 이른다.⁽¹⁷⁾ 이제 이들을 놓고 재산과 신분의 관계가 이야기 속에 전제 또는 화제로서 어떻게 부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분과 재산을 문제삼는 이야기에 있어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신분별로

(17) 그 자료의 번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 8, 9, 10, 12, 14, 15, 32, 36, 43, 44, 45, 51, 52, 53, 54, 55, 56, 61, 62, 63, 65, 66, 67, 68, 69, 70, 72, 73, 74, 75, 78, 80, 81, 83, 84, 85, 88, 91, 93, 97, 98, 112, 113, 114, 115, 116, 119, 129, 140, 142, 143, 149, 151, 153, 162, 169, 174, 175, 176, 185, 186, 191, 203, 207, 211, 215, 216, 217, 219, 221, 226, 229, 232, 239, 241, 249, 266, 267, 280, 281, 283, 284, 289.

볼 때 양반이 가장 많다.⁽¹⁸⁾ 그 중 전제에 있어 양반의 경제적 처지가 제시되고 있는 양상을 크게 부유한 경우와 가난한 경우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⁹⁾

전제 1—부유한 양반 : 청구 12, 119, 142, 143, 151, 211, 219, 249

전제 2—가난한 양반 : 청구 8, 9, 14, 15, 43, 44, 45, 53, 56, 63, 66, 67, 70, 72, 73, 74, 75, 78, 80, 81, 84, 88, 91, 97, 115, 116, 140, 143, 169, 174, 175, 176, 186, 191, 207, 221, 226, 232, 239, 249, 266, 267, 281, 289

이러한 정리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바는 명백하다. 양반에 있어 빈부의 분화가 뚜렷이 이루어진 양상이 거기 반영돼 있다. 특히 그 가운데도 ‘가난한 양반’의 존재가 전제로서 무척이나 많이 부각된다는 점이 관심을 끄는데, 이는 몰락양반의 존재가 화제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흔하고 당연한 일로 여겨졌던 상황을 보여준다. 양반 신분과 경제력의 불일치는 이 이야기들이 떠돌던 당시에 이미 부분적 현상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현상이었던 것이다.

한편 야담 가운데는 ‘양반의 경제적 몰락’을 전제로 수용한 이야기들이 있어 주목된다. 곧 본래 부유했던 양반이 다른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곧 얼마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어느새 재산을 잃고 가난한 처지로 전락한 ‘상황’이 ‘전제’로서 제시되곤 하는 것이다. 다음 자료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제 3—양반의 몰락 : 청구 45, 61, 68, 69, 74, 85, 98, 203, 217, 280

양반의 몰락이 전제로, 별 특별할 것이 없는 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시대 변화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양반의 몰락이 당대 사회에 있어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고, 그러한 변화가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18) 이러한 사실은 야담집 편찬자가 주로 양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야담집을 엮는 과정에서 자신과 처지가 통하는 인물의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19) 인물의 경제적 처지는 이야기 서술의 기본적인 대상으로서 인물이 소개될 때면 그 처지가 함께 언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어렵지 않게 처지를 구별할 수 있었다.

지고 있었던 상황이 거기 반영돼 있다.

다음으로 중인이나 평·천민의 처지가 전제로 제시된 양상을 보기로 한다. (20)

전제 4—부유한 중인(역관, 아전 등) : 청구 32, 114, 140, 207, 229

전제 5—가난한 중인 : 청구 249, 284

전제 6—부유한 평민 : 청구 81, 266, 281

전제 7—가난한 평민 : 청구 93, 112

전제 8—부유한 천민(노비, 기생) : 청구 10, 15, 66, 67, 83, 176, 239.

위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양반의 경우와 달리 중인이나 평·천민이 등장하는 경우에 부유한 처지가 전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발견할 수 있다. 부유한 중인이나 평·천민의 존재가 화제 아닌 전제로서 여러 이야기에 걸쳐 나타난다는 것은 이 이야기들이 회자되던 당대에 있어 '신분 낮은 부자'의 존재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신분과 경제력의 어긋남에 의한 신분계층 질서의 재편이 당대의 일반적·보편적 현상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부유한 천민의 존재가 뚜렷이 부각되고 있어 관심을 끄는 바, 이는 그 재편이 전폭적인 것이었음을 시사해 준다. (21)

이제 이야기의 중심 내용을 이루는 '화제'에 있어 재산과 신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양반의 경우에 있어 그 관계가 화제로 부각되는 양상을 정리해 본다.

화제 1—양반의 극심한 가난 : 청구 8, 63, 74, 88

화제 2—부(富)를 잃는 양반 : 청구 54, 215

화제 3—부를 얻는 양반 : 청구 44, 45, 56, 62, 69, 70, 73, 80, 84, 91, 98,

(20) 중인이나 평·천민에 관한 이야기는 양반에 관한 것에 비해 그 수효가 적다. 그것은 물론 야담집의 편찬자의 신분이 양반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양반이 편찬한 야담집에서 이들이 분명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 계층의 동향이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문제였음을 시사한다.

(21) 조선 후기에 경제력의 재편에 따른 신분계층의 재편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역사학계의 연구를 통해서 이미 드러난 바 있고, 기존 야담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 논문은 이를 재확인한 셈이다. 그렇지만, '전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그 변화가 전폭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었고 사람들에게 의해 당연시됐음을 발견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15, 116, 140, 143, 149, 153, 175, 186, 207, 211, 216, 221, 289

화제 4—벼슬과 부를 얻는 양반 : 청구 9, 15, 43, 53, 54, 66, 74, 85, 169, 174, 176, 215, 226, 239, 267

앞서 우리는 이야기 전제에 있어 양반의 가난한 처지가 부각돼 있음을 보았는데, 화제에 있어서는 양반이 부를(또는 벼슬과 부를) 얻는 내용이 두드러지게 부각돼 있음이 특징적이다. 그 주인공들은 대다수가 가난한 처지가 전제돼 있던 그 양반들이다. 전제와 화제의 이러한 관계 설정은 야담의 담당자(좁게는 서술자)에 있어 몰락한 양반의 처지 회복이 중대한 관심사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지만, 양반의 처지 회복이라는 화제가 부각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곧, 이 이야기들에 기초하여 이 시대에 양반의 처지 회복을 향한 움직임이 폭넓게 나타나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성급한 해석이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그 화제가 필연적 현실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먼저 따져 봐야 한다.

위에 제시한 자료 가운데 굵은 글자체로 된 것은 분석 결과 화제가 필연적 현실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난 것을 표시한 것인데, 그 결과가 흥미롭다. 양반의 극심한 가난이나 몰락을 내용으로 하는 화제가 필연적 현실성을 갖추고 있는데 비하여, 야담이 부를 얻는다는 화제 가운데, 특히 벼슬과 부를 함께 얻는다는 화제 가운데 필연적 현실성을 갖춘 것은 드물게 보이는 것이다. 앞서 2절에서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 보이는 자료를 하나 살펴보았거니와 (청구 74), 다음 이야기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남에 한 무변이 있었는데, 소년등과하여 가산이 부요하였다. 그는 서울에 올라와 여러 차례 벼슬을 구하였지만 허탕한 사람에게 거듭 속아 가산을 탕진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지으려니 이웃사람들이 재산만 잃고 벼슬도 못했다고 조롱하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전답을 팔아 서울로 향하였다. 그는 서울에 오는 길에 충청도에서 가족의 장례를 못 치르는 불쌍한 처녀를 도와 장례를 지내 주는 선행을 하고서는 서울에 당도하였다. 서울에 도착한 무변은 다시 벼슬을 구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돈을 다 탕진하여 진퇴유곡의 곤궁한 처지에 빠졌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병조판서의 노친과 만나게 되어 말동무가 되었는데, 지난 일을 이야기하다 보니 전에 자기가 도와주었던 처녀가 병조판서의

후실이 되어 있는 것이었다. 결국 무변은 병조판서의 추천으로 벼슬길에 나아가게 되었다. <청구 215; 葬三屍湖武陰德>

이 이야기에는 등과한 무변이 벼슬을 얻기 위해 애쓰다가 돈을 탕진해 곤궁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과, 한 불쌍한 처녀를 도와준 것을 인연하여 벼슬을 얻게 되었다는 것 등 두 가지의 화제가 결합돼 있다(좀더 핵심적인 화제는 후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화제 가운데 무변이 벼슬을 구하다 돈을 잃는 과정은 필연적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 전개 과정에 별다른 우연이나 비현실적 요소가 개입하지 않은 채 현실적 논리에 입각해 내용이 전개된다. 그리하여 이 화제는 연줄이 없는 양반이 벼슬길에 나가는 길이 막혀 몰락하는 상황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무변은 벼슬길에 나가게 되는데(두번째 화제), 그것은 필연적인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연에 의한 것이었다. 병조판서 노친과 말동무가 된 것이 우연이며, 자기가 도와주었던 처녀가 마침 그 병조판서의 후실이 돼 있었다는 것은 그보다 더한 우연이다. 그 우연의 결과로 무변은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 갑자기 빛나는 인생행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당대 현실의 실상과 허상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양반이 자신의 처지를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실상이라면, 그 양반이 처지 회복을 통해 부귀를 성취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요행에 의해서 겨우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요행 없이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과 통한다. 결국 이 이야기는 처지 회복의 희망을 드러낼 뿐 그것을 이를 현실적인 방법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몰락한 처지에 있던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되새기는 것은 허망한 꿈 아니면 탄식과 좌절감일 것이다. (22)

양반의 처지 회복을 화제로 한 대다수 이야기는 이처럼 우연성 내지는 비현실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한편에 필연적 현실성을 갖춘 가운데 ‘부를 얻는 양반’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음을 도외시할 수 없다. 위의 목록 가운데 짧은 글자체로 된 것들로서, 그 수는 적지만 주

(22) 이와 비슷한 특징을 드러내는 자료의 예는 앞의 화제 목록에 나와 있듯이 얼마든지 더 들 수 있다. 그러나 논의의 번다함을 피하기 위해 더이상의 예시는 생략한다.

목할 가치가 있다.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현실적인 과정을 통해 부를 성취한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이들이 부를 성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여, 곧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얻어 재물을 모으는 방식으로 부를 성취하지 않는다. 이들은 향리 형세를 한다든지, 장사나 무역에 나선다든지, 열심히 노동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부를 성취한다(그 과정은 계획에 입각한 노력을 통해 순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필연적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처지의 회복’보다는 ‘새로운 삶의 개척’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의 삶은 양반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양반의 모습이 막연히 처지 회복을 꿈꾸는 양반의 모습과 달리 현실성을 갖춘 가운데 전형적으로 부각된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양반이 나아갈 길이 어디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²³⁾

이제 양반에 이어 중인과 평·천민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다음은 중인이 나 평·천민에 있어 경제력의 문제가 화제로 부각된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화제 5—부를 얻는 중인 : 청구 36, 55, 239, 284

화제 6—부를 얻는 평민 : 청구 51, 65, 93, 129, 162, 241, 283

화제 7—부를 얻는 천민 : 청구 113, 129, 203

화제 8—부와 귀를 얻는 천민 : 청구 15, 52, 66, 67, 149, 176, 185, 217

이 정리 결과는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준다. 하나는 화제가 富를 얻는 방향에 집중된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부를 성취하는 내용이 필연적 현실성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²⁴⁾ 경제력을 확보하고 계층의 상승을 꾀하는 중인 내지 평·천민의 모습이 전형성을 부여받고 있는

(23) 양반들이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4절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4) 자료 가운데는 우연이나 비현실적 요소에 의해 부를 성취하는 것들도 없지 않다. 이는 현실적 방법을 통한 부의 획득이 계층을 막론하고 쉬운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계층에 따른 차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바, 이는 중·서민층의 상승이 현실적인 역사적 추세였음을 암시한다. 자료 가운데는 특히 천민(주로 노비)이 부와 귀를 함께 획득하는 내용이 현실성있게 형상화된 것이 많아 주목된다. 이는 ‘부유한 천민’이 흔히 전제로 제시 되는 것과 통하는 것으로서, 이 시기 사회변화의 진폭이 매우 큰 것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를 보기로 한다.

송씨 양반 하나가 오랫동안 벼슬을 못하여 몰락한 채 고단히 살고 있었다. 이때 그 집에 막동이라는 노비가 있어 집안일을 도맡아 하다가 도망해 버리고 말았다. 그 후 3,40년의 세월이 흘러 송씨의 아들이 장성하였는데, 집안이 더욱 빈궁하기 견디기 어려웠다. 송생은 한 친한 벼슬아치의 도움을 청하러 강원도로 길을 떠나게 되었다. 송생(宋生)은 산마루를 넘던 중 날이 저물어 동네 유지인 송선 최씨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 그날 밤 최승지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최승선이 갑자기 주위를 물리치고는 자신이 구복(舊僕) 막동이임을 밝혔다. 그는 서울에서 돈을 번 다음 낙향하여 글을 읽어 양반의 행세를 하게 된 과정과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는 송생을 낮에는 인척으로 대하고 밤에는 주인으로 대하여 극진히 예우하였으며, 돈 만 냥을 주어 보냈다. (이하 생략) <청구 69; 宋斑窮道遇舊僕>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종 출신 인물 막동이 부와 벼슬을 얻기까지의 과정이다. 최승선이 송생에게 이야기한 긴긴 사연을 보면, 그가 양반행세를 하며 벼슬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주밀한 계획에 의하여 성취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사와 양반 모칭, 재물의 활용 등 여러 현실적인 방법이 두루 동원되어 결국 신분 상승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 첫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쇼인이 아회 적의 덕에서 스역홀 제 7만이 덕을 보오니 명운이 비식하고 흥복이 괴약이 업는지라. 스스로 일심이 괴환을 면치 못홀 줄 알고 창졸의 나온 뜻은 마음이 크고 담이 웅장하여 하인의 천호 구실을 따자하고 최사 등 가문이 흰 력하고 무후홀 자를 갈히여 성을 어더 최사로 힘세하고 처음의는 경성의셔 사라 7만이 지물을 버러 수년지간의 수천백금을 어더가지고 이에 틀너가 영평으로 이사하여 문났고 글 넓어 힘신을 근신이 하니 향동이 다 스대부로 일코는지라. 인하여 지물을 훗터 간난홀 백성의 마음을 사코 버물을 후히 하여 부자의 입을 막고 쏘 경성 유협곡을 안마를 화려히 하고 거죽 흰력홀 자의 성명을 비러 년낙하여 하여금 와 찾게 하니 향음이 더욱 미더호더니 쏘 스오년 후의 철원으로 이사하여 힘신하기를 네와 갖치 하니 철원사람이 쏘 일향의 스족으로 더접호거늘 이에 홀 무변의 쫓을 빙네하여 지취호다 칭호고 (...)” (2 권, 348~349면)

이와 같은 현실성에 기초하여 이 이야기는 신분과 경제력의 불일치는 물론, 나아가 신분 자체의 변동(그것도 천민에서 양반으로의 변화)까지도 가능한 현실을 보여준다.⁽²⁵⁾ 여기서 과연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상황이 현실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그것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벌어질 수 있는 일로서 부각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필연적 현실성으로 해서 이 이야기는 현실의 한 첨단을 전형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²⁶⁾

이상에서 양반과 중·서민층을 분리하여 신분과 재산의 관계 양상을 살펴 보았는데, 자료 가운데는 서로 신분이 다른 인물을, 특히 양반과 중·서민층 인물을 동시에 등장시켜 그 처지와 능력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 주목된다. 이 자료들로부터 우리는 신분-재산의 어긋남에 따른 계층적 역학의 변화 양상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이제 그 관계를 ① 맞서 대결하는 경우, ② 원조자와 피원조자의 관계를 맺는 경우, ③ 부부관계를 맺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대별하여 그 의미로 추출하기로 한다.

양반층과 중·서민층이 ‘대결’의 형태로 병존하는 것들 중 대표적인 것은 노-주의 대립을 문제삼는 ‘추노담(推奴譚)’ 계열의 자료이다. 그리고 그밖에 양반과 중·평민층 부자의 대립을 화제로 삼는 것도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화제 9—물락양반과 중·평민층 부자의 대결 : 청구 140, 207

화제 10—(물락)양반과 노비의 대결 : 청구 10, 69, 84, 203

위 자료들에 설정된 대결상황은 기본적으로 필연적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 인물들의 현실적 이해관계나 명분이 부딪친 결과로서 대결이 성립되는 것이다. 예컨대 양반과 노비의 대결에 있어 양반이 신분 관계를 명분으로

(25) 위 내용을 보면 막동이 돈을 버는 과정은 아주 간단히 처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거의 전제로 보아 무방할 정도다. 이는 서민층 인물이, 양반이 돼 벼슬을 얻는 일이라면 후 몰라도, 돈을 벌어 금세 부자가 되는 것이 그리 특별할 것이 없는 일로 여겨졌음을 암시한다.

(26) 한편 송생의 입장에서 보면 양상이 달라진다. 그는 부를 획득하지만 그것은 현실적 필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종이었던 막동이 성공한 데 따른, 그리고 그 막동이를 마침 만난 데 따른 우연적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막동이의 상승 과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여 상납을 요구하는 데 대해 노비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에 맞서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매우 현실적인 상황 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결의 과정과 결과에는, 밑줄 친 두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우연이나 비현실적 요소가 개입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두 이야기가 대결에서 중이나 노비가 승리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 그 나머지 네 편의 우연적인 이야기들은 양반이 승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중·서민층이 승리하는 이야기의 예로서 청구 140에서는 중인 부자가 자기집과의 결연을 끝내 반대하는 양반을 회유하는 과정이 실감있게 그려져 있다. 양반은 자존심을 지키고자 애쓰지만 결국은 무력하게 무너져 부자의 뜻을 따르고 만다. 한편 양반이 승리하는 이야기의 예로서 청구 10을 보면, 한 선비가 추노를 나갔다가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충비(忠婢)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져 종들을 징치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여종의 뜻밖의 도움이라는 우연적 요소가 개입돼 있으며 여종의 행동 동기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 결과 이 이야기를 통해 부각되는 것은 양반의 힘보다는 오히려 종들의 위세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력 없는 양반의 현실적 힘이 부유한 중·서민층이나 노비 세력에 쉽게 맞설 만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양반의 승리란 현실이라기보다는 꿈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두 계층이 '원조'의 형태로 병존하는 자료들이다.

화제11—양반에 의한 중·서민층 원조 : 청구 70, 116, 239

화제12—노비에 의한 양반 원조 : 청구 15, 62, 69, 140, 217

이 정리를 통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노비(또는 노비 출신 인물)에 의한 양반 원조가 부각된다는 점이다. 노비를 부양해야 할 양반 상전이 거꾸로 노비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상황 설정(그것은 대체로 현실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은 현실적 신분과 경제력의 어긋남에 의한 계층질서의 왜해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나마, 원조를 받게 되는 것은 노비의 뜻밖의 호의라는 요행에 의한 것으로서 양반의 입장에서 볼 때—노비의 입장에서 자의에 의한 것으로서 그 양상이 다르다—우연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앞서 청구 69에서 송생(宋生)이 막동으로부터 뜻밖의 원조를 받는 내용을 살

펴본 바 있거니와, 다음 이야기 또한 그 상황이 이와 유사하다.

침지 박언립은 연양 이상공 처갓집 노비로, 평소에는 게으르지만 밥을 양껏 먹으면 천하장사였다. 그 주인댁이 가난하여 그가 먹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내보내려 하였으나, 언립이 집에 남기를 자청하였다. 그러던 중 바깥 주인이 죽으니, 언립이 치상을 한 다음 세간을 정리하여 안주인과 외동딸을 이끌고 시골에 내려갔다. 그곳에서 언립은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가산을 이루었다. 그리고는 장사를 다니면서 주인 딸의 신랑감을 물색하여 양반집 아들과의 결혼을 주선하였다. 경성에 살 집을 마련하여 주인댁을 안돈시킨 지 수년 후에 언립은 비로소 그 집을 나갔다. <청구 62; 成家業朴奴盡忠>

이 이야기에 있어 박언립이 농사를 통해 가산을 일으키고 주인 딸의 배필을 찾는 과정 등은 계획에 의거하여 차근차근 진행돼 나가는 내용으로서 필연적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인댁의 처지가 회복된다는 면에서 그 화제는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주인댁 입장에서 볼 때 그 양상이 달라진다. 그 주인이 가업(家業)을 이룬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기 보다는 내보내려고 했던 종이 나가지 않고 스스로 주인집을 위해 충심을 다하여 일한 데 따른 요행스런 결과였던 것이다. 만약 언립의 존재를 배제할 경우 주인댁은 극심한 몰락을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그리고 그것이 이와 같은 양반 집안의 일반적 운명이라 할 수 있다).

양반이 노비의 원조를 통해 부를 얻는다는 화제에는 양반의 처지 회복에 대한 야담 서술자의 희망이 담겨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실 양반의 무력한 처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 노비의 원조에 의존해서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식은 양반의 권위에 대한 포기와 통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생활은 물론 의식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양반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제 끝으로 신분이나 처지가 서로 다른 인물이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본다.

화제13—몰락양반과 중인녀의 결합 : 청구 140

화제14—몰락양반과 평민녀의 결합 : 청구 80, 85, 115

화제15—몰락양반과 천민녀의 결합 : 청구 15, 52, 66, 67, 129, 149, 176

위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가난한 양반과 중·서민층 여인의 결합을 화제로

삼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특히 몰락양반과 천민녀(여종이나 기생)의 결합을 화제로 한 것이 많은 것이 관심을 끈다.

흥미로운 것은 그 결합의 과정이다. 위에 제시한 거의 모든 이야기들에 있어 남녀간의 결합은 신분이 낮은 여자 쪽의 주도로 이루어진다.⁽²⁷⁾ 여자는 주밀한 계획에 의해 결합을 성사시키고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나간다. 이와는 달리 남자는 여자에 의해 뜻밖에 선택되어 수동적으로 이끌리는 양상을 보인다. 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오생(吳生) 모(某)는 양산 사람으로 짚신을 삼아 팔았는데 신 모양이 불품 없었다. 하루는 지나가던 소년이 희롱해 말하기를 서울에 가 팔면 백냥은 받을 거라고 하였다. 오모가 이 말을 사실로 믿고 서울로 가 짚신을 비싸게 팔고자 하니 모두들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하였다. 이때 한 재상가의 계집종이 그 인물이 비범함을 알아보고 집으로 데려가 남편으로 삼았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돈을 대주어 한량들과 어울려 무예를 익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오모는 무과에 급제할 수 있었다. 그 후 여자가 다시 남편에게 큰 돈을 대주고 장사를 시키니, 오모가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고 다니던 중 한 산중에서 다량의 산삼을 얻게 되었다. 오모는 그 산삼으로 재상들에게 인심을 얻어 벼슬길에 나갈 수 있었다. 그 아내 역시 속량하여 잘 살았다. <청구 66; 獲重寶慧婦擇夫>

이 이야기에서 남녀관계를 주도하는 것은 단연 여종이다. 여종이 신분은 낮지만 능력과 재산 면에서 남자를 압도한다. 이에 비하면 남자는 여종의 의도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우연히 여자를 만나 결혼하며, 그 뜻을 따라 무예를 익히고 장사를 다닌다. 그리하여 이들이 성취하는 부귀는 여종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인 계획을 통해 이룬 필연적인 결과인 데 비해,⁽²⁸⁾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여종을 만난 데 따른 뜻밖의 결과이다(자료를 짧은 글자체로 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하강하는 양반과 상승하는 서민층의 대조가 무척이나 인상적이다.⁽²⁹⁾

(27) 청구 140 정도가 예외이다. 이 이야기에서 남녀의 결합을 주도하는 것은 여자의 부친인 역관이다.

(28) 그 전개 과정 중에 산삼 무더기를 만난다는 것은 우연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의 문맥은 여종이 어떤 식으로든 그 남자의 견문을 넓히고 인심을 얻게하여 출세시키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곧, 우연적인 삽화가 이야기 전체의 필연적인 전개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29) 이 자료에 대해서는 박희병이 이미 비슷한 요지의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박희병, 앞의 논문, 135면.

이와 같은 이야기는 양반의 처지 회복에 대한 서술자의 관심이나 기대와는 상관 없이, 그와는 방향이 다른 역사의 도도하고 엄연한 흐름을 보여준다. 무능한 양반과 달리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능력이 있었던 중·서민층이 변하는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부상하고 있었음을 이 이야기들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의 양상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야담 자료에 나타난 신분과 재산의 관계를 축으로 하여 조선 후기 사회 변화의 양상을 짚어 보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다. 이제 이 절에서는 ‘사유와 행동의 주체’로서의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시대를 살았던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였는가를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분과 재산의 관계를 문제삼는 야담 자료들에는 몰락한 양반들이 매우 많이 등장한다. 이들은 양반이란 상위 신분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다(그것은 앞서 살핀 대로 시대 변화의 산물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 양반들이 대처하는 방식은 단일하지 않다.

몰락 양반들이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한 가지 방식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삶을 습관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다. 아내의 바느질이나 친척들의 도움 등에 의지해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면서 과거—그리고 정치적 연줄—를 통한 출세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양반들의 모습을 여러 이야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미 살펴본 바 있는 청구 74의 유진사나 청구 69의 송씨 양반, 청구 215의 한 무변 등이 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로 이야기 전체나 현실성 있는 화제를 통해 제시되는 이러한 삶의 방식은 실제 현실에 있어 많은 양반들이 취했던 삶의 방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 가난한 양반들은 이야기 속에서 뜻밖의 행운에 의하여 부귀를 얻곤 한다. 그렇지만 앞서 이미 밝힌 바 있듯이 그것은 꿈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이 양반들은 자신의 처지를 극복할 만한 현실적인 어떤 방법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그 삶은 무기력하고 타성적이

다.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에 있어 그러한 삶의 방식이 가져올 현실적인 결과—이야기 속의 결과는 혹시 부귀일지 몰라도—는 더욱 더 심한 몰락과 좌절감일 것이다.

그런데 야담에 등장하는 양반 가운데 무척이나 간고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뜨리지 않고 양반으로서의 도리와 명분을 곳곳이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있어 주목된다. 양반으로서의 법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부귀의 유혹을 거부하려 하는 노학구(청구 140)나 굶주림에 지친 상태에서도 불의한 음식을 들기를 거부하는 선비(청구 81) 등에서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선비의 모습을 옮겨 본다.

스인이 괴로이 무리 고평오더

“밭 출켜를 알지 못하면 반드시 먹지 아니리라.”

그 안희 본더 그 가장의 고집핀 성경을 아노지라. 부득이 덕고하여 고평오더

“우리 문 압 아모 사람의 눈에 도도가 반이나 익었기로 앓가 인정 후의 나가 손으로 그 이삭 두어 줌을 쓰더다가 불의 복가 쌀 오홉을 장만하여 이미 죽을 뿌어 드리오나 스스로 생각전던 참피호은 말슴 엇지 다호오리엇가. 이후 그 사람의 의복이나 지어 주고 갑슬 밧지 아니하면 오날날 불미호은 죄를 저기 속호을 듯 호와이다. 다히호 하져 호쇼셔.”

스인이 작식하여 크게 꾸지져 고평오더

“하늘이 만민을 너서리 반드시 그 힘을 먹어 스통공상이 각각 제 직업이 잇거늘 더 사람의 근고호은 곡식이 엇지 글 넓은 선비의 쥬리고 아니 쥬리는 더 관겨 호리오. 부인의 힘실이 조출치 못하여 이 지경의 니르니 엇지 한신탈 아니리오. 가히 호변 달초하여 경계호을 면치 못호리니 썰니 밧를 하여 오라.”

〈청구 81; 責荊妻清土化隣氓〉(2권, 433~435면)

이처럼 처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도리를 지키려는 인물들의 삶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실제로 이야기 속에서 도둑이 선비의 강직함에 감동하여 그를 도와주게 된다). 그렇지만 올바른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지 못하고 있는 신념이란 실상 현실적 삶에 있어 무용하고 무력한 것이다. 그 무용성은 위에 인용한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선비의 신념에 찬 삶의 방식이 가져온 것은 끼니를 잇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가난인 것이다.⁽³⁰⁾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강직한 인물인 노학구(청구 140) 이야기는 그것의 무력

(30) 비록 도둑의 도움에 의해 처지가 개선되는 내용이 화제로서 제시되지만 그것은 필연적 현실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제로 제시되는 선비의 극심한 가난이 현실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과 대조가 된다.

함을 잘 보여준다. 명분을 내세우며 부자의 회유를 마다하던 노학구는 결국에 가서는 슬그머니 부자가 제공한 편한 삶을 취하고 마는 것이다. (31)

이상에서 살펴본 양반들은 가난한 가운데도 그나마 어떤 식으로든 양반 행세를 하고 있는 경우였다. 그런데 야담에는 이미 양반 출신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형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양반들이 또한 많이 등장한다. 양반으로서의 체면이나 꿈 같은 것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저 생계 유지에 급급한 양반들이다.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불품없는 솜씨로 짚신을 팔아 연명하는 양반 오씨(청구 66)나, 사대부가 자손으로서 생계를 위해 몰래 나무를 하다가 곤경에 처하는 총각(청구 43)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밖에도 이야기 속에서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돼버린 양반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야담의 담당자들은 이 인물들에게조차 부를 (때로는 벼슬까지를) 안겨주지만, 그것은 물론 우연이고 공상일 뿐이다. 삶의 방향감을 상실한 채 능력도 의욕도 없이 세상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양반들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도달할 지점은 극단적인 몰락과 절망뿐인 것이다.

그렇지만 야담에 등장하는 양반들이 모두 구태의연한 삶의 방식에 매달리거나 시대에 이끌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새로운 가치관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벗이던지고 ‘생활인’으로 나서서 경제적 기반을 닦아 나간다. 그 방법은 물품 매점(청구 44, 289), 거간일(70), 산촌 개간(116), 아전일(153), 농업 경영(186)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삼스년간의 적산이 초요하니 마즘 문전담 십두락과 밧 수일경 파는 재 잇거늘 드더여 준가로 사 춘경힐 썩에 꼴오더

“만차 아닌 던담의 엇지 사툼을 품샤 경파하리오. 너 스스로 근력하여 경중하려 하나 농스의 익지 못하니 장춧 엇지호고.”

드더여 비린의 거하는 노롱을 청하여 주식을 더접하여 농장의 안치고 몸소 장기를 잡아 그 지교홀 쫓아 갈고 시므니 여러 날이 못하여 농니에 통호지라. 그 갈기와 기음 띠기를 타인의셔 삼비나 호고 추슈하는 곡쉬 쏘 타인의 셔 비나 호고 밧희는 담비를 심어 썩 크게 가문지라. 도석으로 물을 기러 부으니 일경의 담비 다 말오더 홀노 허성의 담비는 마르지 아니하여 입히 무성하니 서울 상괴 미

(31) 그 변화의 과정은 이야기 속에서 필연적, 현실적으로 형상화되고 있어 전형성을 획득하고 있다.

리 수백금으로써 흥정하고 그두물 담비를 또 후가의 파니 돈이 거의 스오백금의 갖가은지라. <청구 186; 治産業許仲子成富> (3권, 310~311면)

이들이 생활기반을 닦는 행위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위에 예시한 것과 같이 필연적·현실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현실의 한 첨단적 단면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 이야기들에 형상화된 양반들의 성취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조선 후기 양반 사회 자체 내에서—비록 일각에 불과하지만—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실리(實利) 추구적 삶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한 양반들이 단순히 실리에만 집착하지 않고 윤리의식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 위에 일부를 인용한 청구 186의 주인공 허홍은 근면한 노동과 절약이라는 가치관을 현시하며, 관직에 오르는 일보다 아내에 대한 애정을 더 중시하는 인간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청구 70의 주인공 김세항은 자신이 번 돈으로 빈민을 도와주며, 청구 116의 주인공 이생과 청구 289의 주인공 허생은 더 나아가 빈민에게 생활의 터전을 제공하기까지 한다. 곧 이들은 공생 공영의 윤리의식을 실천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32)

윤리적 방향성을 상실한 실리 추구는 이기주의로 귀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현실과 괴리된 윤리명분에 대한 집착 이상으로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변하는 시대현실에 맞춰 적극적으로 실리 추구적 삶에 나서면서도 건전한 윤리의식을 잃지 않는, 아니 그것을 새로이 얻어내고 있는 위 인물들—비록 그 수는 적지만—이 갖는 의미는 크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조선후기 양반이 자기개선을 통해 역사 발전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길이 한편에 열려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 양반들의 삶의 방식을 두루 살펴보았거니와, 양반과 달리 본래 명분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는 중인층이나 평·천민층 인물들이 이야기 속에서

(32) 이와 관련하여 임철호는 청구 186의 주인공 허홍 등 부를 추구하는 유형의 양반들이 도덕관의 타락을 보이다가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임철호, 앞의 논문, 162~163면). 그렇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윤리의식에는 기존 도덕관의 회복이라고 보기 힘든 새로운 의미내용이 들어 있다.

나타내 보이는 삶의 방식은 당연히 양반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양반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낸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묵수하며 좌절해 가는 인물들이 없지 않지만, 그러한 삶의 방식이 주류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 보통이다.⁽³³⁾

신분-재산을 문제삼는 야담 자료에 등장하는 중·서민층 인물들은 보통의 양반들과는 달리 ‘생활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방법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혹은 부지런한 노동과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통하여(청구 15, 55, 69, 93, 149, 217), 혹은 황무지 개간(청구 36)이나 해외무역(청구 162)과 같은 개척적인 방법을 통하여 부(또는 부와 귀)를 성취하곤 한다. 그리고 그 성취의 과정은, 앞서도 이미 살펴본 바 있듯이(청구 69)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 다른 간단한 예를 하나 더 보기로 한다.

그들은 어영청 둔전을 여러 회 전패하였더니 개춘을 당하여 모든 조식을 거느리고 부지런히 밭출 일워 보리를 시며 등하의 녹철뵈석을 거두고 이듬히에 모뵈과 두태를 시며 천여석을 거두고 이듬히에 작답하여 벼를 시며 수천석을 추수하니, 이곳치 흔지 삼년의 가산이 부요하더라. <청구 36; 金貞生聚子授工業> (2권, 153-154면)⁽³⁴⁾

이 이야기들에 나타난 인물들이 보여주는 삶의 양상이 당대 중인이나 평·천민의 일반적·보편적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무언가 ‘특별한 것’임으로 해서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터이다. 그렇지만 그 모습은 허상이 아니라 전형적 실상이다. 이야기 내용의 필연적 현실성이 이를 뒷받침한다. 요컨대,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주인공들을 통해서 중·서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다.

(33) 그 한 예로 추노를 나갔다가 종들의 공격으로 곤경에 처하게 된 양반 주인을 살리고 자기 목숨을 바친 향단의 경우를 들 수 있다(청구 10). 낮 모르는 주인을 위해 자청하여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나아가 자기 친척과 이웃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는 향단의 행위는 그 동기나 행동 양상에 있어 현실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34) 이 이야기에는 인용 부분에 앞서 주인공이 각지를 다니며 아들을 낳아 그 모든 자식이 칠십명이나 된다고 하는 잘 믿기지 않는 내용이 제시돼 있다. 그렇지만 황무지 개간을 통해 부를 성취하는 과정은 어디까지나 일상적이고 현실적이다.

중인층이나 평·천민층 인물들이 나타내 보이는 삶의 방식의 밑바탕에는 물론 ‘실리(實利)’를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그것이 윤리의식과 절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작중의 중·서민층 인물 가운데는 추노하러 온 양반을 죽이려 한 노비들(청구 10, 84)이나 신의를 버린 서민부자(청구 207)처럼 윤리를 저버리는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리고 그 행위가 현실성을 갖추고 있지만, 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한 인물보다는 윤리의식을 갖추고 살아가는 인물들이 더욱 폭넓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중·서민층 인물들이 나타내는 윤리의식 가운데는 앞서 지적한 향단의 예(주 33 참조)처럼 봉건적 관념을 추수하는 형태를 띤 것도 있다. 그렇지만 작품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또한 현실성 있게 부각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과 궤를 같이하는 새롭고도 건전한 가치관·윤리관이다. 스스로 일하고 근검 절약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가치관이 현시되며(청구 55, 69, 93 등),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 진심에서 우러난 신의를 중시하는 윤리관이 구현된다(청구 67, 149, 176, 239).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골라 배필로 삼는다든가(청구 15, 52, 66, 129) 과부가 된 딸을 개가시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청구 140) 또한 추상적 명분보다는 인간적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윤리관에 따른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쥬옹이 갈오더

“너 집이 더더 역관으로 가업을 조퇴호야 작위 금옥의 모침호고 가산이 요족호니 무어시 부족호리오만은 다만 슬하의 호 너식쑤이다. 사름의 폐물을 타다 합근을 밋쳐 못호여 부세 문득 요스호여 청춘 공규의 경시 가련호지라. 네로 직히미 한이 있고 청문의 거리끼미 잇서 문득 기가치 못호고 거연 삼년이 된지라. 너식이 홀연 전쇼의 인호호를 마지 아니호니 소리마다 한이 밋치고 단디마다 창재 쓴허지니, 비록 흥노지인이라도 쏘호 위하야 감창호려든 허물며 일점 혈육 잇스너(?) 일일을 더호미 문득 일일 근심이 있고 빅년을 좇아 지너미 문득 빅년 즐거오미 업슬지라. 도로 인성이 빅구광음이라. 비록 스독으로 귀를 짓거리고 금슈로 눈을 현란호고 고향으로 입을 즐길지라도 오히려 여일이 부다호거든 너 쏘 무손 연고로 눈물노 일용을 삼고 이원으로 가계를 삼으리오. 일이 궁박호고 계피막힌지라. 이에 노복으로 호여금 세배 가로의 나가 기다려 무론현우귀천호고 반드시 처음 만나는 쇼년장부를 마자 극덕호여 드려오라 호여 씨 가연을 절호려 호더니 쫓아닌 낭군이 식너로 더부러 월노스의 삼성연을 밋조 우함어 심히 공

교하니, 천단 바라건더 그 정상을 가공히 너겨 허어곰 진줄을 밋들게 하라.”

〈청구 140; 結芳緣二八娘子〉(3권, 51-53면)

조선 후기에 있어 중·서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과연 새로운 역사를 주체적으로 열어나갈 수 있을 만큼 내실있는 것이었던가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자료를 확대하여 더욱 다각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거리일 것이다. 그렇지만 『청구야담』이 그려내고 있는 여러 중·서민층 인물들의 형상은 최소한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모자람이 없지 않은가 한다. 특히 그들이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능력과 함께 건전한 가치관·윤리관을 나타내곤 한다는 점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5. 맺 음 말

이 논문에서는 『청구야담』을 대상으로 하여 야담 자료 속에 나타난 조선 후기 사회적 삶의 양상을 살펴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야기 속에서 사실과 허구가 얽히는 양상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의 수용 양상을 더욱 체계적으로 드러내 밝히며, 당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가치관과 관련지어 점검해 보는 데 논의의 주안점을 두었다.

그 논의를 통해 추출한 결론은, 세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기본 내용에 있어 기존 연구의 결과와 특별한 차이가 없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신분과 경제력의 어긋남이 폭넓게 나타나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역사의 추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변화에 있어 양반층보다 중·서민층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새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결론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논의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닐 터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 있어 기존 논의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논의의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야기에서 전제와 화제를 가름으로써 현실의 ‘단순한 반영’과 ‘특별한 반영’의 양상을 가려 따질 수 있었고, 이야기 화제 가운데 필연적 현실성을 갖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갈라서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꿈이 만들어낸 허상과 현실의 전형적 실상을 구별해 드러낼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방법을 논제와 관련되는 자료들에 두

루 적용하여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논의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밖에 당대인의 삶의 방식을 그 가치관과 연관하여 해명한 것도, 아직 어설픈 시론에 불과한 것이지만, 논의 진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한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논의는 전반적으로 매우 성글고 거친 것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 거리를 남겨두고 있다. 전제와 화제를 가르고 필연성과 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더 객관화해야 하며, 이야기 속에서 허상과 실상을 분석해내는 방법을 더 가다듬어야 한다. 이 중 후자는 서술자 의식의 개입 양상에 대한 신중한 고려의 필요성과 맞물려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포괄적 논의를 위해 신분 계층을 단순화하였는데, 앞으로 각 계층 별로 연구분석이 훨씬 더 구체화돼야 하며 그에 입각해 계층간 관계에 대한 논의가 보장돼야 한다. 이 밖에, 『청구야담』 이외의 여타 야담집으로 고찰대상을 넓혀서 문제를 폭넓게 검증하는 것 또한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아있다.

(필자 : 덕성여자대학교 강사,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